

“부활의 종교”

고린도전서 15:12-13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교들은 나름대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는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 일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완전한 죽음 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새 육체를 물려 받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죽기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는 '소생'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는.. 그래서 새로운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활의 열매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기에 부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만난 우리들이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만해도,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에 대해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고전 15:12-13)

바울은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요, 만일 이것을 놓치면 그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강하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복음을 공격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의 특징은 영혼은 소중하고 육체는 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재가 아닌,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실제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라는 정신과 사상이 중요하다는 정도에서 그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주장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전 15:3-6)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실인가?' 라는 것보다 '부활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얼핏 보면 그럴 듯 하지만, 잘못된 주장입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그들이 강조하는 부활신앙은 그저 속임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며, '성경대로' 라는 단어를 두번이나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함께, 자신이 그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고전 15:7-9)

사도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어 놓았던 사건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를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는 그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실패자에 불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한 이후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뀐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의 부활이 실제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그 예수의 부활을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역시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보고 그는 비로소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죽음이 끝이라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오직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일테니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은 거짓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모두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그 분은 우리 죄의 빚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해 피나는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만큼 불행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전 15:19)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즉, 그 분은 우리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의 삯으로 받아야 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정신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워싱턴성광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고백은 쉽게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 신앙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